

불자 세상보기



이강열 경시대 편집국장

며칠 전 단편영화 <격정 소나타>의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했던 최고는 작가가 자신의 자취방에서 숨졌다. 나이 32세, 유작이 되어버린 12분짜리 단편영화처럼 짧지만 격정적인 삶의 자취를 남기고 이승을 등졌다. 그런데 원인이 생활고로 인한 지병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해 준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영화계 종사자들의 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두들 영화계의 해묵은 관행이 원인이라고 여기고 있어서이다.

어떤 분야보다도 외화내비의 이중성을 지닌 곳이 문화계가 아닌가 싶다. 실제로 곁으로 드러난 화려해 보이는 모습에서 그들의 힘든 속내를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다. 별 생각 없이 영화나 텔레비전을 통해 대면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에서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벗어나게 해 주는 대상 정도이다.

‘격정 소나타’의 마지막 울림

이번에서 일하는 작가들의 대부분은 사전준비 단계에서부터 작업을 함께 한다. 5개월 여의 기간 동안 작가와 스태프에게는 임금이 나오지 않는다. 어쩌다가 투자자가 없어 제작이 취소되면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관행이다.

고인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에서 시나리오를 전공한 재원이었다. 보도 초기 언론에서는 시신을 처음 발견한 이웃집 방문 밖에 쪽지가 붙어 있었다고 했다. “그동안 너무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은 밤이랑 감자가 있으면 저희 집 좀 좀 두들겨주세요.” 절박하고 안타까운 이 한 장의 메모는 네티즌과 영화인들을 더욱 비통케 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고인에게는 지병이 있었지만, 끼니를 굶은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최근에는 가까웠던 친구들의 증언을 토대로 고인의 직업적인 사인이 영양실조보다는 감상선기능항진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발작 등 지병으로 밝혀졌다. 고인에게는 우울증도 있었다. 아사와 병사, 결과야 어떻든 창작의 길은 고달프고 팍팍하다. 생활고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육체적 고통과 병마를 날

았다. 고인의 죽음 뒤에는 창작자 개인의 노력보다는, 단지 이윤 창출의 도구로만 보려는 문화산업의 논리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 ‘달빛오정역전만루홀란’의 이진원 씨도 최고는 작가와 마찬가지로 아니었을까. 이들은 모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의 치유를 위한 크나큰 숙제를 남겨주고 갔다. 이제라도 문화계의 계층 간 빈곤의 문제와 불공정한 관행이 시정돼야 할 것이다.

때마침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나라당 문화예술체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두언 의원 주최로 ‘한국 영화예술계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행사에서는 고(故) 최고는 작가의 사례를 통해 “정치인들은 아무리 바빠도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이지만 모르다가도 어떤 일을 계기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 문제가 제기 되는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적 관행, 인식을 함께 고쳐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사람답게 사는 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예술인은 창작행위자 이전에 생활인이어야 열정

만으로 현실을 극복하기는 힘들다. 이쯤 되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대안이 필요하다. 이즈음 예술인에게 복지란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그나마도 여당의 특위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렇다. 작금의 시대는 사회와 주변에 대해 모두들 무심하게 지낸다. 그러나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같이 원인이 있고 해결의 근본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것을 넘어 타인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 아닌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 그것이 건강한 사회를 향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무아(無我)라는 개념에서 보면 원래가 나라는 존재는 없다. 그래서 백기어를 향해 도림 선사는 말했다. “악업을 짓지 말고 좋은 일을 하라. 스스로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지금이라도 내게서 가까이 있는 주변에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자. 알고 보면 모두들 나 아닌 것으로 부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인의 삶은 그가 남긴 12분짜리 단편영화처럼 너무나 짧았다. 문화계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 실로 안타깝고 슬프다.

社說

무소유의 바보가 되자

2월 28일(음 1월 26일)은 법정 스님이 열반한 지 1주년이 된다. 평생을 청빈한 수행자로 살았던 스님. 지금도 ‘무소유’ 하면 법정 스님으로 통한다.

이에 앞선 16일은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2주기였다. 김 추기경의 천진함은 그에게 ‘바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였다.

무소유와 바보. 이 시대의 큰 스승이던 스님과 추기경은 생전에 길상사와 명동성당에 오가며 교류했다. 스님은 성당을 찾아 ‘강론’을 했고, 추기경은 법당에서 ‘법문’을 했다.

스님과 추기경이 보여줬던 친교는 이제 볼 수 없다. 신앙이 달랐던 그 교감만큼은 종교 간의 벽을 허물고 두 손을 맞잡았던 영혼의 동반으로 우리 가슴에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

두 분이 보여줬던 화해와 소통의 분위기는 최근 간 곳 없다. 다종교 사회로는 드물게 종교전쟁이 없던 한국의 종교계에는 먹구름이 가득하다. 불교편향이다 해서 당장이라도 폭풍우가 몰아칠 기세이다. 바람도 거세다.

자승 스님은 없었지만 동창 대중의 표정은 결연했다.

사부대중은 발원문에서 자승과 쇤신의 결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불교 사회와 함께 하는 불교, 시대정신을 부여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한국불교이기를 발원하고 다짐했다.

이들은 그동안 권력과 외부에 기대었던 자세, 자주권을 불모로 순간의 편안함을 추구했던 모습으로 인해 민족문화가 왜곡됐다고 참회했다. 편향된 종교적 이해와 갈등 조정 등이 모두 불교계 스스로의 허물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행·문화·생명·나눔·평화 결사의 길을 걷겠다고 했다.

어느 것 하나 구체적이지 못한 결사는 여전히 먼 산의 메아리와 같았다. 생경하게만 들렸다. 왜, 무엇 때문일까?

자승과 쇤신의 결사에서 자기반성이 결여됐다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알맹이 없이 구호에만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108배는 보여주지 않던 이벤트일 뿐이라는 비판이 아우성친다. 진정성이 없다는 우려도 가득하다. 과거에 다 제기된 이야기라는 말도 들린다.

교계의 눈 밝다 자처하는 이들은 결사의 외침 뒤에, 108배의 발발을 뒤에 어리석음과 탐욕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덕조 스님은 “은사스님은 말·글·행동이 일치했던 참 선사이다”라고 말했다. 자승과 쇤신의 결사가 모두의 온몸에 체득되려면, 낙단보의 바람이 훈풍이 되려면, 교계 구성원 각자가 무소유의 바보가 되어야 한다.

사뭇 무소유와 바보가 그리워지는 요즘이다. 이것이 선인을 추모하고 기리는 이유이다. 28일 길상사에서 만나자.

사부대중 칼럼



지용 박사 육군 제25사단 비행사 주지

군대의 겨울은 어디나 춥고 긴 것 같다. 정신없이 훈련하고 뛰던 가을보다 휴식이 많은 계절이라 더 길게 느껴진다. 겨울이 되면 군법당에서는 부대 여기저기 흩어져 활동하는 군중병들을 모은다. ‘불교 군중병 집체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개가 넘는 단위부대에서 군중병을 모으다 보니 보통 훈련이 없는 혹서기·혹한기가 제격이다.

집체교육에서는 불교 군중병으로서 알아 할 예절과 교리, 법당관리와 법회 진행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배운다. 특히 비상근 포교사가 법회하는 법당에서 온 군중병들은 실질적으로 ‘각 법당의 운영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이 아니면 법사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

불교 군중병. 적게는 100여 명의 중대를, 많게는 400명이 넘는 대대급 부대를 대표해서 선발된 이들이지만 군에 입대하기

전에 불교를 경험해 본 적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 점이 불교와 다른 종교 군중병의 차이점이다.

개신교의 경우 군중병 대부분이 학생회·청년회 간부출신이다. 때문에 개신교 군중병은 활동은 물론이고 병사들 자체적으로 교리연구 등이 진행되기도 한다. 부러운 장면이다.

불교 군중병들이 교리 이전에 절하는 법, 합장하는 법, 부처님과 보살님이 무슨 뜻인지 등 불교의 ABC부터 배워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불교를 모른체 불교 군중병이 된 이들에게는 새벽예불과 108배는 체험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 군포교 일선에서는 신기한 눈으로 두리번 거리는 그들을 데리고 늘 처음부터, 아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들의 자세와 눈빛이다. 각 군법당 별로 나누어 모뎀토의를 시키고 현실의 문제점과 미래 발전방향을 토의시킬 때의 진지함은 가히 숙연해질 정도다. 그렇게 사찰의 주인으로서 스스로를 자각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교육은 대단한 열정 속에 진행된다. 강의시간에

교재의 여백마다 빼곡히 써 내려간 메모와 밤늦도록 찾아와 귀찮게 질문하는 녀석들. 새벽예불부터 이어진 강행군에도 아랑곳 않고 매일 밤늦도록 토론이 이어지는 날들. 그렇게 1주일이나 지나면 그렇게 어려워 하던 신참대기들이 정말 늙름한 법당의 주인들로 변해갔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고간 평가서를 읽어보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나아가 군불교와 한국불교의 미래까지도 염려하는 대견한 말들도 많이 보인다. 부대로 돌아가서는 이웃종교 군중병들과 어깨를 겨루며 당당히 활동한다. 이것이 군법사 생활 속에 얻는 무언과도 비할 수 없는 격려이고 보람이다.

젊은이들이 없는 한국불교라고 많이들 말한다. 나 또한 유소년 불교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 필자는 군불교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해 왔다. 군중병이라고 불리는 청년들이다. 한 해 10만 수계불자라고 해도 정말 마음 속에 ‘주인’으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법회에 참석하는 병사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더더욱 군중병들이 소중해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각 법회에서 주인공들

이기 때문이고 작은 법당이지만 마음으로 는 주지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단만 해도 한 해 동안 5번의 심층교육을 수료한 군중병들이 벌써 100명을 넘었다. 전국 400여 군사철에서 배출되는 군중병은 한 해 수천 명은 족히 될 것이다. 이들과 잘 교육해서 전역 후 각 지역 청년법회에 흡수될 수만 있다면, 각 사찰에 가서도 지금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활동할 수 있다면 우리 불교가 지금보다 훨씬 젊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군중병 교육 시스템은 걸음마 단계이다. 법회의 무게에 매몰돼 깊이 살피지 못했던 탓이다. 배출된 청년불자들이 제대 후 사회 법회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전역한 군중병 가운데에는 주변의 청년회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직접 법당을 두루 관리하고, 법회를 준비하며, 직접 목탁을 치고 예불을 울리며 새 불자를 안내하고, 때론 상담도 때론 포교활동도 했던 고급인력들이다. 불교 군중병들. 불교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들을 꼭 주목해야 한다.

미래 불교의 희망 군중병에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일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www.hyunbul.com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충청지사 : (043)732-5560 부산지사 : (051)632-0064
전북지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관리규정 및 그 실현 요강을 준수한다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종헌(정흥교) 크스님 직강



·자비불교실천연합회장(현)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장(현)
·녹야선원장 ·불교학과교수
·구단구궁법 저자

강 의

목요일 : 저녁 7시 - 9시
금·토요일 : 오후 1시 - 5시
상담 : 010-7415-0803

◆손으로 짠 5분안에 자궁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구단구궁으로 짠 귀신뿔아 조상천도연계.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특전 : 등록비 (1,000,000원)
승려증소자 (50%)

특허출원번호 : 40-2010-0009061
[구단구궁법] 41-2010-0004261

*** 강의 일정표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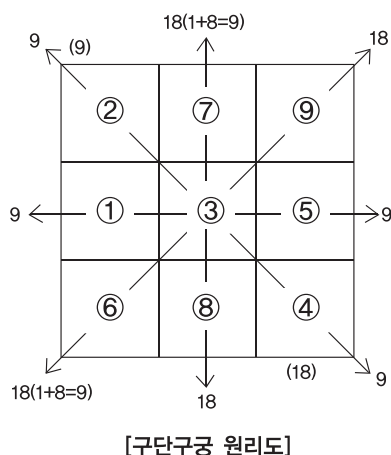


Table with 4 columns: 학과, 기간/요일/시간, 강의과목, 비고. Lists various courses like 불교학과, 불교교리학과, 장례지도학과, 다도예절학과, 불교의식학과, 풍수학과, 명리학과, 이수명리학과, 타로학과, 구단구궁학과.